

# 아련한 추억이 밀려온다



전세계가 기억하는 진정한 영웅  
영원이 죽지 않는 아소룡

진실의 귀환  
**정무문**  
FIRST OF FURY

PHILIPPE NOIRET JACQUES FERRIN  
**CINEMA Paradiso**

##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필름 영화, 디지털로 변환 '리마스터링' 붐

광주극장 '정무문' 상영중... '시네마천국' 예정

흥진 차를 몰고 바닷가로 달려간 두 사내. 한번도 바다를 본적이 없는 한 남자와 그 남자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또 한 남자는 둘 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 카메라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백사장에 앉은 두 사내의 뒷모습을 비추고, 한 남자는 '스스르' 옆으로 쓰러지며 죽음을 맞는다.

그들의 마지막과 함께 '노킹 온 헤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가 흐르면 가슴이 먹먹해 진다. 1997년에 제작된 독일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는 많은 영화팬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되는 영화 중 하나다.

개봉 당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고 책과 잡지에서만 접해 개인적으로 '필견'(必見) 영화 중 하나였던 이 작품을 지난 봄 직접 볼 수 있었다. DVD나 컴퓨터의 작은 화면 아닌, 광주극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과정을 통해 복원된 영화는 이렇게 2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관람객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필름 영화의 화질을 보정, 디지털로 변환하는 리마스터링 붐이 일면서 추억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리

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새롭게 상영되는 영화들은 다양한 내용이 덧붙여진 '감독판'인 경우도 많아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오래된 '옛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필름 형태를 그대로 상영하거나,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을 상영하는 경우. 지난해 광주극장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로마의 휴일', '아마데우스' 등의 영화를 필름으로 상영,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전했다.

올해는 리마스터링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났다. 일본 문화가 개방된 후 첫 상영작이었던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 레터'와 '4월 이야기'가 상영됐고, 장 르노가 주연을 맡았던 '레옹'과 '그랑블루' '노킹 헤븐스 도어'도 관객들을 만났다. 특히 '그랑블루'와 '레옹'은 '감독판'이 상영돼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랑블루'는 회당 100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았고, 질푸른 바다가 인상적인 오리지널 포스터를 증명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2010년에는 '대부1' '대부2'를 상영했다.

현재 광주극장에서 상영중인 '정무문' 역시 리마스터링 작품으로 1973년 국내 흥행 1위를 기록했다.

광주극장은 '정무문'의 흥행 추이를 살펴

본 후 '맹룡과강'과 '사방유희'의 개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서울에서 먼저 개봉하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대표작 '시네마 천국'(1988) 역시 광주극장의 개봉 대기작 중 하나다.

로마에서 영화감독을 하던 중년의 토도가 고향의 영화 기사 알프레도의 부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칸 심사위원대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무엇보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감성적인 음악 때문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은 영화다.

특히 광주극장은 '시네마 천국'에 등장하는 영사기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옛 영사기가 극장 3층에 전시돼 있어 또 다른 추억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광주 개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예정된 상영작도 많다. 소피 마르소 주연의 '라붐', 왕가이 감독의 대표작 '화양영화', '중경삼림' '동사서독 리덕스' 등이 개봉 대기중이며 레오 카락스 감독의 '퐁네프의 연인들' '몽상가들'도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는 "리마스터링돼 다시 관객을 만나는 작품들은 인지도가 있어 마케팅 포인트 잡기가 쉽다"며 "기회가 닿으면 '대부' 등을 다시 상영하는 등 몇작품을 모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행사도 기획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전남문화재단 소식지 창간호

## '문화랑'

문화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발행하는 소식지 '문화랑' 창간호가 나왔다.

올해로 재단 출범 4주년을 맞아 발행한 소식지에는 창간특집으로 문화전문가들의 릴레이 인터뷰 '전남문화예술재단의 미래를 말한다'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보완점,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화랑 포커스' 코너에서는 전남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뜨고 있는 전남도립극단 '판페라 이순신'과 창단 8년만에 가족뮤지컬에 도전한 전남도립어린이극단의 '호랑이 형님' 초연무대를 소개했다.

'문화랑 현장'에서는 토요그림경매 현장인 진도 올림산방을 찾아 작품이 낙찰되는 과정과 다양한 체험 행사 등 가족들과 함께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소개했다.

이외에도 문화나눔 3인방이 소개하는 문화이용권 사업, 아시아퓨전음식만들기와 극단·밴드 창단 등 다문화 정착과 문화 다양성 확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재단의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담았다.

문화랑은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두차례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0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광주성악콩쿠르 열띤 경연

테너 김정훈씨 1위

'정율성축제' 오프닝 무대

지난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2013 광주성악콩쿠르에서 테너 김정훈(26·서울대 4)씨가 1위(상금 1500만원)를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성악콩쿠르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콩쿠르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축제'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김씨는 이번 경연에서 정율성 가곡 '황학루'와 라흐마니노프의 '나에게 노래하지 마오', 푸치니의 '그대의 찬송' 등 세 곡을 풍부한 고음과 감각적인 음색으로 불러 영예를 안았다. '황학루'로는 정율성가곡상도 수상했다.

스무살의 나이에 뒤늦게 성악을 시작한 김씨는 제50회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8월 15일 광복기념음악회에서 서울시향(지휘자 정명훈)과 협연하기도 했다. 김씨는 1위 특전으로 오는 11~14일까지 열리는 '광주-정율성 축제' 오프닝 무대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 기회를 갖는다.

이밖에 2등 테너 이명현(서울대 졸), 3등 바리톤 이태영(부산대 졸), 반주상 피아니스트 김소강(드레스덴 국립음대 졸)씨가



테너 김정훈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전남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고향상과 향토상은 각각 소프라노 지현주(숙명여대 졸)와 바리톤 손승범(전남대 졸)씨가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광주성악콩쿠르는 입상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차세대 성악인들의 등용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테너 이정원(96년 2등)과 베이스 전승현(97년 1등)은 소프라노 조수미, 홍혜경,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 스칼라와 무대에 오른 국내 성악인 다섯명에 이름을 올렸다. 바리톤 강형규(97년 공동 1등)도 이탈리아 베로나 야외극장에서 한국인 남성 최초로 '투란도트'에 출연,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바리톤 이동환(07년도 2등) 역시 영국 코벤트가든 극장에 데뷔해 화제를 모았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잊혀진 시간과 마주하다'

6일 양림의 소리를 듣다 네번째 공연

문화예술전문단체 '공연 순수(대표 정현기)'는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 내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앞마당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part4: 잊혀진 시간과 마주하다'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 시도문화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공연은 감미로운 영화 OST를 야외 공연으로 즐기고 고전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찰리 채플린, 해롤드 로이드와 함께 할리우드 무성 코미디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버스터 키튼의 걸작 무성영화 '설록 주니어'를 상영하고, 즉석 피아노 연주와 효과음 등을 삽입해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인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 '타라의 테마', '레미제라블' 중 'I dreamed a dream' 등의 영화 속 명곡들을 함께 듣는 자리가 준비돼 있다. 베이스 임해철,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김진희·노진선 등이 함께 한다.

양림들의 잊혀진 시간들과 마주하는 시



'설록 주니어'

간도 마련된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인 우월순(미국령 로버트 윌슨) 선교사 사택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한다. 양림동에서 태어나고 자라 1954년 최승희, 최옥삼, 정주 등과 함께 조선 최초의 컬러영화 '사도성 이야기'를 제작해 모스크바영화제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감독 정준채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문의 070-4240-097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험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서비스표등록증**  
상표번호 41-0241299호

**5-18낙지**

# 낙지의 명가 5.18낙지

##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061-375-2383**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